

2014. 04. 10(목) 조간용

(※ 4 월 9 일 오후 14:30 부터 보도 가능)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전시 주제 및 참여작가 발표 기자간담회

- 일시: 2014.04.09, 수요일, 오후 2 시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사무동 1 층 회의실
- 발표자: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박찬경,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예술감독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참여작가
최원준, 참여작가

[목차]

1.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소개
2. 전시 제목: 귀신 간첩 할머니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3. 참여작가 명단 (1 차)
4. 아이덴티티 소개
5. 예술감독 소개
6. 담당자 연락처
7. 웹하드 이미지 목록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소개

*舊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미디어아트 비엔날레이다. 현대 서울의 미디어 특성을 반영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이 행사는 2000년 '미디어시티'라는 명칭으로 개막하여 2년마다 열려왔다. <미디어시티서울>은 동시대 예술을 중심으로 과학, 인문학, 테크놀로지의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제작한 미디어 작품을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람객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역대 예술 감독으로는 유진상, 김선정, 박일호, 이원일, 윤진섭, 송미숙 등이 있었고, 지난 12년간 전 세계에서 1,000명 이상의 작가들이 <미디어시티서울>에 참여했다. 그동안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었던 <미디어시티서울>은 2014년 제 8회를 맞이했으며, 2013년부터 미술관 직영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뉴미디어 아트를 중심으로 하는 융복합 예술의 축제로 자리매김해온 <미디어시티서울>은 미술관을 넘어 지역과 세계, 고전과 현대, 전통과 대안의 양면가치를 추구하는 서울시립미술관(SeMA)의 '포스트-뮤지엄' 비전과 궤를 함께하고 있다.

- **전시 기간:** 2014년 9월 2일 - 11월 23일
-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한국영상자료원
- **주최:** 서울특별시
- **주관:** 서울시립미술관
- **예술감독:** 박찬경

전시 제목: 귀신 간첩 할머니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는 **귀신 간첩 할머니 Ghosts, Spies, and Grandmothers** 라는 제목으로, 9 월 2 일부터 11 월 23 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전 층에서 다양한 미디어아트, 설치미술, 영화, 사진, 회화, 조각 등을 전시한다.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30 여 편의 엄선된 영화와 비디오, 설치미술을 선보인다.

'귀신', '간첩', '할머니', 이 세 낱말은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귀신'은 지배적 역사 서술에서 누락된 고독한 유령을 불러와 그들의 한 맺힌 말을 경청한다는 뜻으로 쓰고자 한다. 유령의 호출을 통해, 굴곡이 심했던 아시아를 중심으로 근현대사를 되돌아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불교, 유교, 무속, 도교, 힌두교의 발원지이자 그 종교적 영향이 여전히 깊은 아시아에서, 현대 미술가들이 그 정신문화의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발견, 발명하고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많은 참여 작가들은 제의, 신비, 환상, 공포, 송고 등을 대하는 현대인의 독특한 양가감정을 다루며, 현대와 전통이 충돌하고 교섭하는 장면을 포착한다. 우리는 미디어와 미디어움(영매)의 재결합을 통해, 현대 과학이 쫓아낸 귀신들이 미디어를 통해 되돌아오기를 희망한다.

'간첩'은 아시아에서 식민 시대와 냉전의 경험이 특히 심각했다는 점에 주목하기 위한 키워드이다. 특히 3.11 동일본 대지진 이후 동아시아에서 국수주의가 재등장하는 가운데, 방사능 재난으로 대변되는 벼랑 끝의 근대성을 뿌리 깊이 반성하는 계기를 찾으려 한다.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가 함께 겪은 거대한 국가 폭력은, 전쟁은 물론 사회의 극심한 상호 불신과 이념적 마녀사냥 등을 낳았고, 이는 여전히 이 지역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휴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간첩'은 간첩 사건은 물론, 민주화 운동, 금기, 지역감정, 감시, 급진주의, 망명, 은행 전산망 해킹, 영화의 흥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를 것이다. 또한 코드 해석, 아카이빙, 통신을 다루는 다양한 미디어 작가들의 작업 방법이, 어떻게 '간첩'의 활동과 유사해 보이면서도, 그 가치를 완전히 역전시키는지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할머니'는 권력에서 가장 먼 존재이자, '귀신과 간첩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온 증인이다. 최근 위안부 할머니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갈등은, 식민주의와 전쟁 폐해의 핵심에 여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다른 한편, 한국 전통문화에서 '옛 할머니'는 자손을 위해 정화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 한국에서 이는 하나의 고리타분한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할머니의 간절한 기원'을 남성이 투사하는 손쉬운 상상으로부터 벗겨 내, 민중의 적층된 염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아마도 '할머니'는 권력에 무력한 존재이지만, '옛 할머니'가 표상하는 인내와 연민은 바로 그 권력을 윤리적으로 능가하며, 정치적으로 잠식하는 능동적인 가치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 에 초청된 많은 작가의 작품은 '귀신', '간첩', '할머니'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주제에 부합한다. 양혜규, 배영환의 신작은 인류학적 지평에서, 영성과 문명에 대한 복합적인 상상을 자극할 것이다.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의 신작은 서울시립미술관 건물 자체를 주제로 삼아, 일제시대부터 최고재판소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역사를 재구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티 위다사리 Otty Widasari 와 닐바 귀레쉬 Nilbar Güreş 의 초청작은 시적인 영상 속에서도, 새로운 미디어가 오래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생각하게 할 것이다.

<미디어시티서울> 2014 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작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아시아를 죽은 대상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자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영역'으로 보기를 원한다. 따라서 주제에 부합하는 아랍과 서구의 작가들 역시 동등하게 참여한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에서는 신작 12 여점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는 근래 미디어시티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작이기도 하다. 5 월 중 최종 작가 명단이 발표될 것이며, 현재까지 결정된 주요 작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참여자작가 명단 (1 차)

작가명	국적, 출생연도
배영환	한국, 1969
에릭 보들레르 Eric Baudelaire	프랑스, 1973
최원준	한국, 1979 최원준은 한국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집창촌과 뉴타운의 군사시설, 버려진 미군 부대 등의 특정장소가 사회정치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 아카이브 설치 등의 시리즈 작업으로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다. 2009년부터 영화, 비디오에 더욱 주력하고 있는 작가는 문래동에 있는 박정희의 동상을 중심으로 한 영화 “문래”를 2011년 에르메스미술상 전시에서 발표해 동상과 기념비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최원준은 대안공간 풀, 국립현대미술관, 플라토 등 국내 미술기관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의 주요 미술기관의 전시에 참여해왔다. 2010년 일우사진상을 수상했고, 2012년 국립 파리 케 브랑리 미술관에서 창조적 예술상 수상 및 프로젝트 지원작가로 선정되었다.
최진욱	한국, 1956
최승훈+박선민	한국, 2003 결성
정서영	한국, 1964
필라 마타 듀폰트 Pilar Mata Dupont	호주, 1981
니나 피셔 & 마로안 엘 사니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독일, 1993 결성
닐바 귀레쉬 Nilbar Güreş	터키, 1977
호 신 텅 Ho Sin Tung	홍콩, 1986
조해준	한국, 1972
주재환	한국, 1941
정은영	한국, 1974

김인회	한국, 1938
김수남	한국, 1949-2006
딘 큐 레 Dinh Q. Lê	베트남, 1968
자오싱 아서 리우 Jawshing Arthur Liou	대만, 1968
요안나 롬바르드 Joanna Lombard	알제리, 1972
바심 막디 Basim Magdy	이집트, 1977
민정기	한국, 1949
나이토 마사토시 Naito Masatoshi	일본, 1938
자크랄랄 닐탐롱 Jakrawal Nilthamrong	태국, 1977
프로펠러 그룹 The Propeller Group	베트남, 2006 결성
노재운	한국, 1971
리나 셀란더 Lina Selander	스웨덴, 1973,
션 스나이더 Sean Snyder	미국/독일, 1972
쑤 위시엔 Su Yu-Hsien	대만, 1982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일본, 1977 타무라 유이치로는 일본 도쿄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동 대학원 영화, 뉴미디어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 그는 영화, 설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미디어와 영역을 넘나들며 움직이는 이미지의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왔다. 작가는 직접 찍은 이미지뿐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을 독특한 관계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풍경을 선보인다. 물리적인 존재와 경험의 요소들을 융합시키는 설치부터 관객을 끌어들이는 퍼포먼스까지 작품의 형태가

다양하다. 타무라 유이치로는 2012 년 일본 도쿄 현대미술관(MOT)의 Annual 2012 에 선정되었고, 그의 작품은 도쿄 현대미술관, 도쿄 사진미술관 등에 소장되어있다.

쯔엉 콩 퉁
Truong Cong Tung

베트남, 1986

오티 위다사리
Otty Widasari

인도네시아, 1973

양혜규

한국, 1971

야오 주이 청
Yao Jui-chung

대만, 1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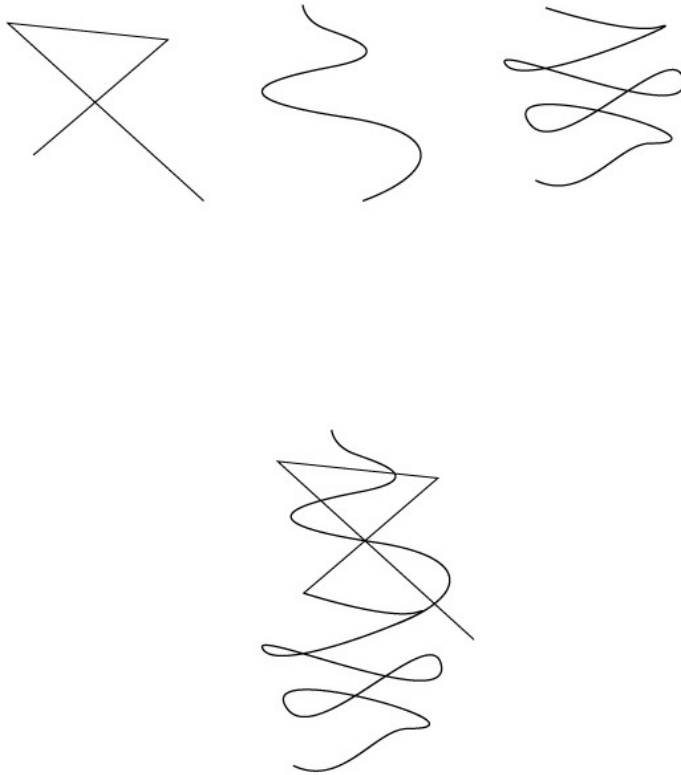
요네다 토모코
Yoneda Tomoko

일본, 1965

마할디카 유다
Mahardika Yudha

인도네시아, 1981

아이덴티티 소개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의 아이덴티티는 ‘귀신’, ‘간첩’, ‘할머니’ 각각의 흔적, 혹은 존재하는 방식, 혹은 태도의 형태에서 실마리를 얻어 기본적인 구조를 만들고 이를 다시 조합하여 전체를 아우르는 상징이다.

전시의 주제로서 삼자의 존재양식이 형상화되었을 때 우리는 그로부터 기원의 원형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매듭처럼 묶여있던 것이 울울이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는 현대의 부적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시기간 동안 이 아이덴티티는 이미지를 품는 플랫폼으로, 또는 작품을 매개하는 지시적 기호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될 것이다.

그래픽 디자인, 정진열

그래픽 디자이너,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조교수.

국민대, 예일대 대학원에서 그래픽디자인을 전공했으며 플랫폼 2009, 광주비엔날레 2010,

백남준아트센터, 국립극단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예술감독 소개

박찬경(1965)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자 영화감독이다. 냉전, 남북관계, 한국의 전통 종교문화, 역사의 재구성 등을 주제로 다뤘으며 주요 영상 작업으로는 <신도안>(2008),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2011), <파란만장>(2011, 박찬욱 공동감독), <만신>(2013) 등이 있다. 아틀리에 에르메스, 미국 로스앤젤레스 레드캣(REDCAT), 독일 슈트트가르트 솔로스 솔리튜드 아카데미(Akademie Schloss Solitude)등 세계 전역에서 다수의 전시에 참여한 바 있다. 에르메스 코리아 미술상(2004), 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영화부문 황금곰상(2011), 전주국제영화제 한국장편경쟁부문 대상(2011) 등 약 10 여 차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안공간 풀 디렉터를 역임했고, <포럼 a>, 계간 <볼>의 편집위원을 맡으며 미술언어를 새롭게 생산하는데 힘써왔다. 현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의 예술감독이다.

담당자 연락처

문의:

서울시립미술관

유민경 <미디어시티서울>담당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Office. 02.2124.8973
E-mail. minkyungyoo@seoul.go.kr

변지혜 홍보담당 큐레이터
서울시립미술관
Office. 02.2124.8928
E-mail. bsjihye@seoul.go.kr

서울시립미술관 홍보 웹하드

주소 <http://webdisk.eseoul.go.kr/ohd/pm/home/login.php>
ID: bsjihye
PW: sema2013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유주연 커뮤니케이션 팀장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Office. 02.2124.8979
E-mail. ljj.mcs@gmail.com

김혜영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Office. 02.2124.8988
E-mail. ghy.mcs@gmail.com

웹하드 이미지

타무라 유이치로

Tamura Yuichiro



A dream I dreamt in a forest

2013

Sculpture(Mask), Film

Kuala Lump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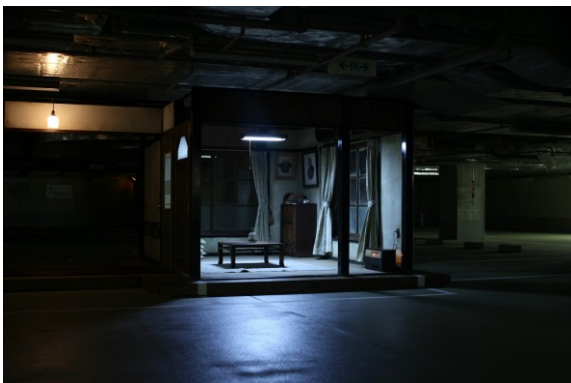


Deep Marsh

2012

Text, Museum Collection, Installation
in the basement parking lot plac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Deep Marsh

2012

Text, Museum Collection, Installation
in the basement parking lot place

Museum of Contemporary Art Tokyo

타무라 유이치로는 도쿄, 런던, 베를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다. 작가는 미디어라는 매체에 집중하여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작업을 제작하거나 미디어의 관점과 의미 자체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에서 작가는 서울시립미술관 건물과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과 법원이었던 건물의 용도, 그 속의 사건들과 인물 그리고 미술관의 컬렉션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제작할 예정이다.

최원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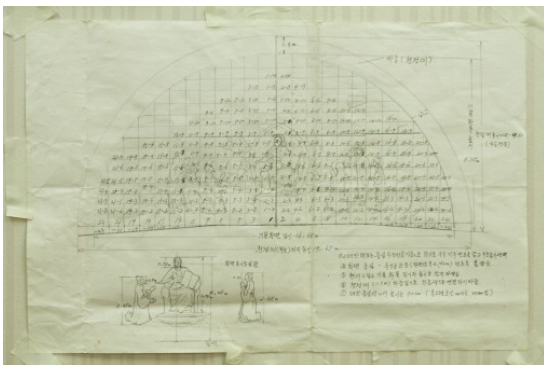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2014

3 채널 HD 비디오

약 20 분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2014

3 채널 HD 비디오

약 20 분



만수대 마스터 클래스

2014

3 채널 HD 비디오

약 20 분

최원준은 한국의 근대화를 보여주는 집창촌과 뉴타운의 군사시설, 버려진 미군 부대 등의 특정장소가 사회정치적으로 변하는 과정을 사진과 영상, 아카이브 설치 작업으로 발표하여 주목받고 있는 작가다. 그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 2014 에서<만수대 마스터 클래스>라는 신작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작업은 70년대부터 아프리카의 여러 독재 국가에서 초대형 동상 제작 당시 북한의 예술가와 기술자들도 참여했다는 기사를 접하며 시작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이다. 그들이 건설한 기념비와 동상, 건축물에 대한 영상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설치, 사진 작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쫘엥 콩 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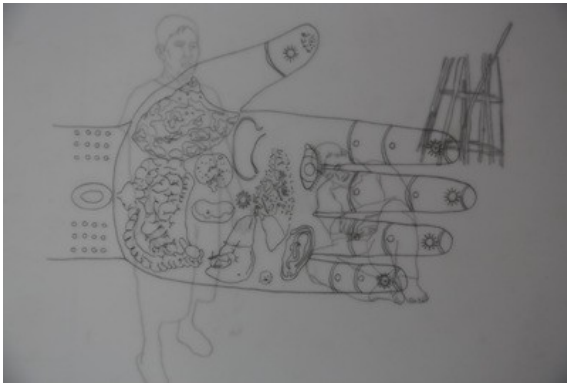
Truong Cong Tung



Magical Garden

2012-2014

found photograph taken by the patients at "Magical Garden", Long An province, Vietnam.



Magical Garden

2012

mixed media

쫘엥 콩 똥은 베트남 호치민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작가이며,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를 통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소개될 예정이다.

작가는 영적 문화, 구전 역사, 토속문화 등에 관심이 많은데, 베트남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때 찾는다는 호치민 교외에 있는 롱안 지역의 <Magical Garden> 이야기를 우연히 신문기사로 접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수집한 정원의 이미지와 오브제, 그 지역에서 기록한 사운드와 드로잉 북을 선보일 예정이다.

*외 기자간담회 현장 사진과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4 의 아이덴티티 자료 포함.